



Original Article / 원저

## 한의학대생의 교육 만족도 및 한의학 신뢰도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한예진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Korean Medical Students' Satisfaction with Education and Trust in Korean Medicine

Yejin Han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Korean medical students' satisfaction with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their trust in Korean medicine. It also explored the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trust in Korean medicine.

**Methods** : Based on a total of 381 survey responses, the satisfaction with Korean medicine education, reflection of educational needs, trust in Korean medicine, reasons for maladjustment to education,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education were analyzed.

**Results** : Satisfaction with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trust in Korean medicine were generally above average. However, reflection of educational needs was below average. It was found that the curriculum should be rearranged according to the needs of premedical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The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Korean medicine education were gender, academic year, dropout experience, trust in Korean medicine, and reflection of educational needs. Factors affecting trust in Korean medicine were gender, academic year, and satisfaction with Korean medicine education.

**Conclusion** : This study found that satisfaction with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trust in Korean medicine have a reciprocal relationship. To improve students' satisfaction and adjustment to Korean medicine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trategies to increase students' trust in Korean medicine. In addition,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and instructors to collaborate on curriculum design by establishing a feedback system that reflects students' needs.

**Key words** : Satisfaction, Trust, Korean Medicine Education, Korean Medical Student

## I. 서론

최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KAS2021 시행에 따라 한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기존 한의학 교육과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학 교육 인증 기준 2021~2025(Korean medicine educ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2021; KAS2021)’을 마련하였다.<sup>1)</sup> KAS2021은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의 기본의학교육 국제표준(Basic Medical Education WFME global standards 2015)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그 이상의 수준을 충족하는 한의학 교육을 만들고자 한다.<sup>1)</sup>

한의학 교육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대상자인 한의대생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대학 교육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 볼 수 있고, 의학교육 평가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sup>2,3)</sup> 대학의 교육을 실제로 경험한 학생들에 대한 인식 조사는 대학의 교육 기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내실화와 개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sup>2,4)</sup>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에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해왔다. 김창엽 외(1996)<sup>5)</sup>, 권상우 외(2012)<sup>2)</sup>, 정선형 외(2020)<sup>1)</sup>의 연구에서는 교육자, 교육시설,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의대생 혹은 한의대생의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최근에는 한의학 교육 만족도와 더불어 한의학 자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주성준 외(2016)<sup>6)</sup>의 연구에서는 교육 만족도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양한방 협진, 의료일원화, 한의학과 중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한의학의 세계화, 한의과대학 진학을 추천할지 여부에 대한 한의대생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박영규와 임규상(2021)<sup>7)</sup>의 연구에서는 교육 만족도와 더불어 한의학에 대한 호감, 한의학의 미래 전망, 한의학 치료의 의학적 효과 신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한의대생이 가지고 있는 한의학 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의대생이 한의학 자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학습 내용에 대한 가치 인식이나 신념은 학습 동기가 학습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만약 한의대생의 한의학에 대한 호감이나 한의학 치료 효과에 대한 신뢰가 낮다면 한의학 교육에 대한 만족이나 교육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진로 선택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한의대생이 한의학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한의학 교육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의대생의 한의학교육에 대한 인식과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의학 교육과 한의학 신뢰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한의학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한의학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전북지역 W대학교 한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총 381명으로 남성은 217명(57.0%), 여성은 164명(43.0%)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만 23.8세였으며, 예과1학년이 76명(19.9%), 예과2학년이 79명(20.7%), 본과1학년이 78명(20.5%), 본과2학년이 72명(18.9%), 본과3학년이 63명(16.5%), 본과4학년이 13명(3.4%)이었다. 마지막으로 유급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5명(3.9%), 유급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366명(96.1%)였다.

### 2.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 기본 특성 문항(성별, 연령, 학년, 유급 경험), 한의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 문항, 교육 요구 반영도 문항(강의 평가 결과가 다음 수업에 얼마나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Corresponding author: Yejin Han,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si, Jeonbuk-do, 54538, Republic of Korea.

E-mail : yejin2@wku.ac.kr

•Received : January 15, 2024 / Revised : February 15, 2024 / Accepted : February 19, 2024



문항), 한의학 교육에 부적응하는 이유와 개선점에 대한 문항,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 문항(주변인 아플 때 한의학 치료를 얼마나 추천하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개발한 설문지는 한의학 전문가와 교육학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0을 활용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통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ANOVA(Analysis of Variance)을 통해 집단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한의학 교육과 한의학 신뢰에 대한 인식

한의학대생의 교육 만족도, 교육 요구 반영도, 한의학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Table 1. 참조). '교육 만족도'는 평균 3.28(.88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만족하는 학생은 42.8%,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1.7%, 불만족하는 학생은 15.5%였다. '교육 요구 반영도'는 평균 2.63(1.032)으로 나타났다. 교육 요구 반영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19.9%,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8.3%, 반영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41.7%였다. '한의학 신뢰도'는 평균 3.51(.819)로 나타났다. 신뢰도가 높은 학생은 56.7%, 보통 수준인 학생은 33.3%, 신뢰도가 낮은 학생은 10.0%였다.

Table 1. Students' perception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trust in Korean medicine

	Frequency	Percentage	M(SD)
Satisfaction with Korean Medicine Education	very high	18	4.7
	high	145	38.1
	neutral	159	41.7
	low	43	11.3
	very low	16	4.2
Reflection of Educational Needs	very high	8	2.1
	high	68	17.8
	neutral	146	38.3
	low	93	24.4
	very low	66	17.3
Trust in Korean Medicine	very high	26	6.8
	high	190	49.9
	neutral	127	33.3
	low	30	7.9
	very low	8	2.1

다음으로 한의학 교육에 부적응하는 이유를 학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참조). 먼저, 학년에 상관없이 전체 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5개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적성에 맞지 않음'이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한의학에 대한 신뢰 부족'이 21.6%, '한의사의 미래 불투명'이 16.8%, '기초학력 부족(한자 등)'이 12.5%, '학습동기가 없음'이 9.9%, '기타'가

14.7%였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적성에 맞지 않음'과 '한의학에 대한 신뢰 부족'은 모든 학년에서 첫 번째 순위와 두 번째 순위였지만, 나머지 이유에 대해서는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예과 학생들은 본과 학생들에 비해 '기초학력 부족(한자 등)'을 더 높은 순위의 부적응 이유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과 학생들은 예과 학생들에 비해 '학습동기 부족'을 더 높은 순위의 부적응 이유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의학 교육에 대해 불만족하는 사항 혹은 개선점을 학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먼저, 학년에 상관없이 전체 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5개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과3학년의 과도한 과목 수'가 1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임상 교육 부족'이 9.5%, '불필요한 과목 개편'이 8.6%, '예과2학년 교육과정 개편'이 8.6%, '원전학 과목 축소'가 7.8%, '기타'가 50.0%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실습 시간 확대,

신규과목 개설, 유급 부담 경감 등이 있었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예과 학생들은 '예과2학년 교육과정 개편'과 '원전학 과목 축소'에 대한 의견을 다수 제시하였으며, 본과4학년 학생들도 '원전학 과목 축소'에 대한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본과1학년과 본과2학년 학생들은 '임상 교육 부족'과 '불필요한 과목 개편'에 의견을 다수 제시하였으며, 본과3학년 학생들은 '본과3학년의 과도한 과목 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하였다.

Table 2. Reasons for maladjustment to education by academic year

Category	Pre1	Pre2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Total
Not suitable for the aptitude	45(25.4)	44(25.9)	44(24.3)	45(25.7)	32(21.1)	7(22.6)	217(24.5)
Lack of trust in Korean medicine	36(20.3)	38(22.4)	39(21.5)	38(21.7)	34(22.4)	6(19.4)	191(21.6)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of Korean medicine doctor	34(19.2)	26(15.3)	32(17.7)	28(16.0)	23(15.1)	6(19.4)	149(16.8)
Lack of basic academic skills (e.g., Chinese characters)	35(19.8)	30(17.6)	20(11.0)	14(8.0)	11(7.2)	1(3.2)	111(12.5)
Lack of motivation to learn	13(7.3)	13(7.6)	21(11.6)	21(12.0)	17(11.2)	3(9.7)	88(9.9)
Others	14(7.9)	19(11.1)	25(13.8)	29(16.6)	35(23.0)	8(25.8)	130(14.7)
Total	177(100.0)	170(100.0)	181(100.0)	175(100.0)	152(100.0)	31(100.0)	886(100.0)

\*frequency(percentage)

Table 3. Dissatisfaction reasons about education or suggestions for improving education by academic year

Category	Pre1	Pre2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Total
Excessive number of courses in Junior	0(0.0)	0(0.0)	0(0.0)	3(9.4)	15(71.4)	0(0.0)	18(15.5)
Lack of clinical education	0(0.0)	0(0.0)	1(6.3)	8(25.0)	2(9.5)	0(0.0)	11(9.5)
Modification of unnecessary courses	0(0.0)	3(10.0)	3(18.8)	4(12.5)	0(0.0)	0(0.0)	10(8.6)
Redesign of Pre2 curriculum	1(14.3)	6(20.0)	0(0.0)	3(9.4)	0(0.0)	0(0.0)	10(8.6)
Reduction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urses	0(0.0)	5(16.7)	0(0.0)	0(0.0)	0(0.0)	4(40.0)	9(7.8)
Others	6(85.7)	16(53.3)	12(75)	14(43.8)	4(19.0)	6(60.0)	58(50.0)
Total	7(100.0)	30(100.0)	16(100.0)	32(100.0)	21(100.0)	10(100.0)	116(100.0)

\*frequency(percentage)

2. 한의학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의학 교육 만족도가 성별, 학년, 유급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Table 4. 참조). 먼저 성별에 따라 한의학 교육 만족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만족도 평균이 3.45(.778)로 남성 응답자의 평균 3.15(.9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도 한의학 교육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예과1학년, 본과2학년, 본과3학년, 예과2학년, 본과1학년, 본과4학년 순으로 만족도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 경험에 따라서도 한의학 교육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유급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만족도 평균이 3.30(.874)로

유급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평균인 2.73(.88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한의학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속변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참조). ‘교육 요구 반영도’와 ‘한의학 신뢰도’가 한의학 교육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교육 요구 반영도’가 1 증가하면 한의학 교육 만족도가 0.491 증가하며, ‘한의학 신뢰도’가 1 증가하면 한의학 교육 만족도가 0.1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은 한의학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atisfaction with Korean medicine education by categories

Variables	Category	M	SD	t/F	p-value
Gender	Male	3.15	.931	t=-3.380	.001
	Female	3.45	.778		
Academic year	Preparatory course1	3.45	.994	F=2.412	.036
	Preparatory course2	3.24	.851		
	Freshman	3.06	.858		
	Sophomore	3.42	.784		
	Junior	3.29	.869		
	Senior	2.92	1.115		
Dropout Experience	Yes	2.73	.884	t=-2.462	.014
	No	3.30	.874		

Table 5.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Korean medicine education

Factor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TOL	VIF
	B	SE	$\beta$			
(constant)	1.751	.337		5.198***		
Age	-.006	0.12	-.023	-5.17	.981	1.020
Reflection of Educational Needs	4.19	.038	.491	11.098***	.971	1.030
Trust in Korean Medicine	.162	.047	.150	3.424***	.986	1.014
F(p)				49.603***		
adj.R <sup>2</sup>				0.277		
Durbin-Watson				1.974		

\*p<.05, \*\*p<.01, \*\*\*p<.001

### 3. 한의학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가 성별, 학년, 유급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참조). 먼저 성별에 따라 한의학 신뢰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신뢰도 평균이 3.64(.734)로 남성 응답자의 평균 3.42(.868)보다 높았다. 학년에 따라서는 한의학 신뢰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본과4학년, 본과3학년, 본과1학년, 본과2학년, 예과1학년, 예과2학년 순으로 신뢰도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 경험에 따라서는 한의학 신뢰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한의학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속변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참조). ‘한의학 교육 만족도’가 한의학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학 교육 만족도’가 1 증가하면 한의학 신뢰도가 0.2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과 ‘교육 요구 반영도’는 한의학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rust in Korean medicine by categories

Variables	Category	M	SD	t/F	p-value
Gender	Male	3.42	.868	t=-2.687	.009
	Female	3.64	.734		
Academic year	Preparatory course1	3.45	.870	F=2.666	.022
	Preparatory course2	3.39	.791		
	Freshman	3.50	.802		
	Sophomore	3.47	.903		
	Junior	3.68	.692		
	Senior	4.15	.555		
Dropout Experience	Yes	3.53	.834	t=.091	.928
	No	3.51	.820		

Table 7. Factors affecting trust in Korean medicine

Factor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TOL	VIF
	B	SE	$\beta$			
(constant)	2.569	.351		7.327***		
Age	.013	0.12	0.53	1.045	.983	1.018
Reflection of Educational Needs	.010	.047	.012	.204	.732	1.367
Satisfaction with Korean Medicine Education	.187	.055	.201	3.424***	.739	1.353
F(p)				5.748***		
adj.R <sup>2</sup>				0.044		
Durbin-Watson				1.999		

\*p<.05, \*\*p<.01, \*\*\*p<.001

## IV. 고찰

### 1. 한의학 교육과 한의학 신뢰에 대한 인식

한의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의대생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거나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의 교육 요구가 반영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이거나 반영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앞선 연구 결과에서 교육 반영도는 교육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자의 요구를 교육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자,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등에 대해 학습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를 마련하고, 학생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피드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sup>9)</sup>.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는 대체적으로 높거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의학 교육에 부적응하는 이유로 한의학에 대한 신뢰 부족이 2번째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의학에 대해 보통 이상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지만, 교육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은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가 교육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의학 교육에 대한 부적응 혹은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교과 혹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의학 교육에 부적응하는 또 다른 이유로 적성에 맞지 않거나 기초학력이나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특히 예과 학생들은 기초학력 부족을, 본과 학생들은 학습동기 부족을 부적응의 이유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한의학 교육에 대한 개선점으로 예과 교육과정에서는 예과2학년의 과정을 개편하고 불필요한 과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과 교육과정에서는 임상 교육을 확대하고 본과3학년의 교육 시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년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각 학년의 요구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와 교수자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sup>10)</sup>. 학습자는 주체적인 학습설계자로 학습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교수자는 학습자가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요구를 조정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2. 한의학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의학 교육 만족도에 성별, 학년, 유급 경험, 한의학 신뢰도, 교육 요구 반영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고 유급 경험이 없는 학생일수록 한의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자신의 교육 요구가 잘 반영된다고 인식하는 학습자일수록 한의학 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학 교육 만족도는 한의학 교육에 대한 적응과 진로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곧 핵심역량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대학의 목표와도 이어지기 때문에 한의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의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습자의 요구를 교육 시스템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3. 한의학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에 성별, 학년, 한의학 교육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그리고 예과 학생들보다 본과 학생들이 한의학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의학 교육 만족도와 한의학 신뢰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앞선 연구결과와 함께 종합해보면,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한의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으며, 한의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 최근 양방협진,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 한의학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면 기간 유지되어왔던 한의학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한의학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한의대생의 한의학 교육과 한의학 신뢰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한의학 교육 만족도와 한의학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다. 또한, 한의학 교육 만족도와 한의학 신뢰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대상을 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료수집 도구와 자료 유형의 한계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의학 교육 만족도나 한의학 신뢰도와 같은 관심 지표를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 지표에 대해 여러 하위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 인터뷰를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양적 자료를 보완하는 등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습자의 인식과 요구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한의대생의 한의학 교육에 대한 인식과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고, 한의학 교육 만족도와 한의학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총 381명의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한의학 교육 만족도, 교육 요구 반영도, 한의학 신뢰도, 교육 부적응 이유 및 개선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의학 교육 만족도와 한의학 신뢰도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교육 요구 반영도는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예과부터 본과까지 각 학년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과 학생들에게는 기초학력 보강, 본과 학생들에게는 학습동기 부여가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한의학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년, 유급 경험, 한의학 신뢰도, 교육 요구 반영도가 있었으며, 한의학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년, 한의학 교육 만족도가 있었다. 이를 통해 한의학 교육 만족도와 한의학 신뢰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대생의 한의학 교육에 대한 만족과 적응을 위해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학습자와 교수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1. Jeong SH, Jeong-Pil Kim, Yu-Jeong Kang, Hye In Jeong, Kyeong Han Kim. A Survey of Recognitions and Satisfaction with Educa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20;24(3):49-56.  
2. Kwon SW, Shin SW, Lim BM. A Survey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Educa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Journal of Society of Korean Oriental Medicine*. 2012;33(1):1-11.  
3. Foldevi M. Undergraduate medical students' rating of clerkship in general practice. *Family Practice*. 1995;12:207-13.  
4. Ruben BD. *Quality in higher education*. New Brunswick(NJ):Transaction Publishers. 1995.  
5. Kim CY, Kim SM, Seo JD, Earm YE, Ahn YO, Kim SG, Chai JY, Lee SH. A Survey of Student's Satisfaction on Med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996;8(2):169-188.  
6. Joo SJ, Eom DM, Song JH. A Research for Recognitions of Korean Medical Student towar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Education.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6;20(3):1-8.  
7. Park YK, Lim KS.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Korean Medicine Students' curriculum of Korean Medicine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Medicine Society For The Herbal Formula Study*. 2021;29(4):253-266.  
8. Pintrich PR, Schunk DH.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Prantice Hall. 2002.  
9. Yu JS, Kim DP. Linking university-wide key competencies and discipline specific major competencies for designing competency-based major curricula in Korean higher educ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2; 22(15):189-210.  
10. Jo HG. The Changes of Higher Education and the Tasks of Gener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2017;11(2):53-89.